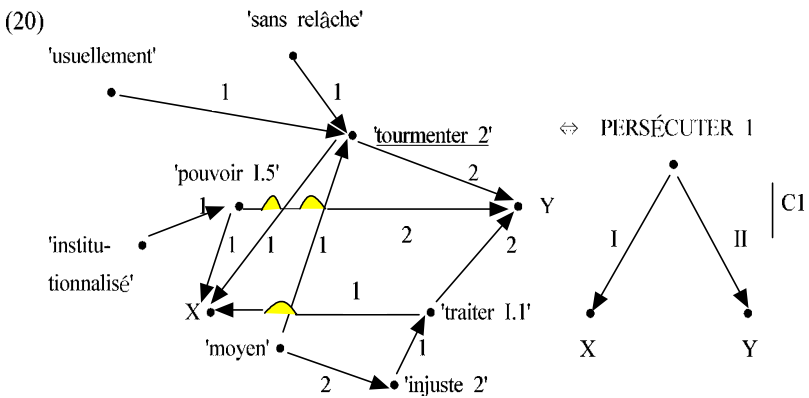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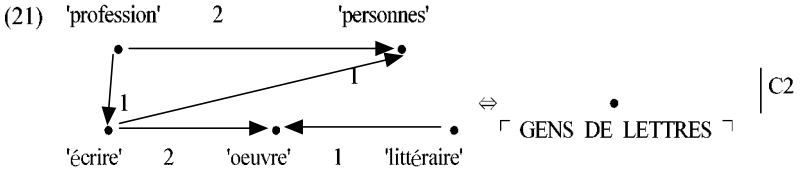
규칙으로 구성되는데 이 규칙들은 하위의미망을 하위 심층통사 수형도에 관계짓는 역할을 한다. 이 규칙들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7 과 2 은 결합·설명 사전의 항목에 포함된다.

7. 어휘-의미규칙 *règle lexico-sémantique* : 하위의미망과 심층어휘소를 대응시킨다. 이 규칙은 한 어휘소의 사전항목 *article de dictionnaire* 과 유사하다. 'persécuter 1'의 의미를 갖는 어휘소 PERSECUTER 1의 예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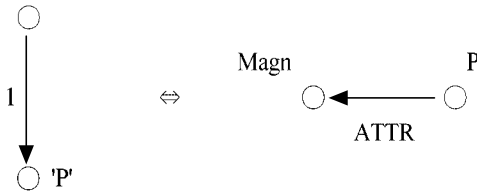
왼편은 'persécuter 1'의 의미분해 *décomposition de sens*로 이루어진 정의 *définition* 부분이며 오른쪽의 수형도는 대략 지배구조를 나타낸다. 밑줄은 의미적으로 지배적인 요소를 나타낸다. 또한 사전 항목이 어휘소의 의미·통사적 결합관계에 대한 정보, 즉 통사적 특성과 어휘합수를 포함하고 있듯이 어휘-의미규칙 하에서는 이런 정보들은 C로 표시되는 규칙의 조건부를 구성한다. 어휘-의미규칙의 수는 한 언어에 존재하는 어휘적 의미의 수와 일치하며 대략 백만개 정도로 추산된다.

2. 숙어-의미규칙 *règle phraséologico-sémantique* : 하위의미망과 숙어소를 대응시킨다. 숙어-의미규칙은 한 숙어소의 사전항목과 유사하며 그 수는 수천개 정도이다.



ㄷ. 어휘함수-의미규칙règle lexico-fonctionnelle sémantique : 하위의미망과 어휘함수를 대응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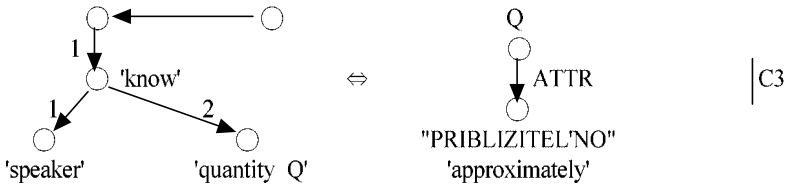
(22) 'intens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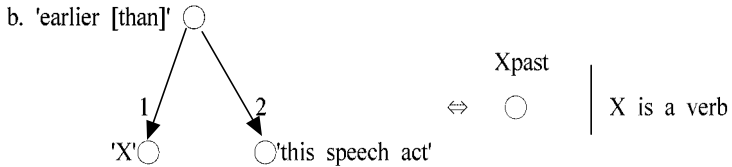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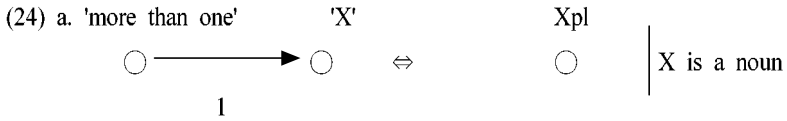
어휘함수 Magn는 어휘소에 '강화intensive'의 의미를 부여한다.

ㄹ. 통사-의미규칙règle syntaxico-sémantique : 통사구문으로 실현되는 의미와 가상 어휘소를 대응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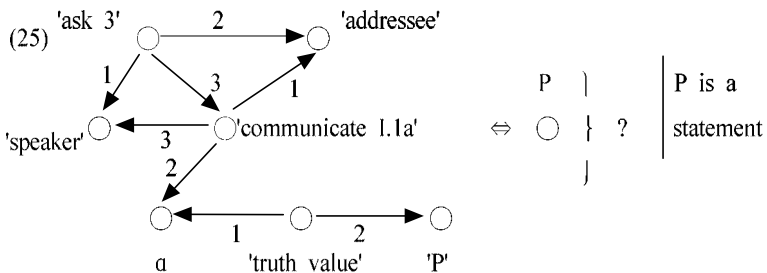
(23) 'exact' 1 'n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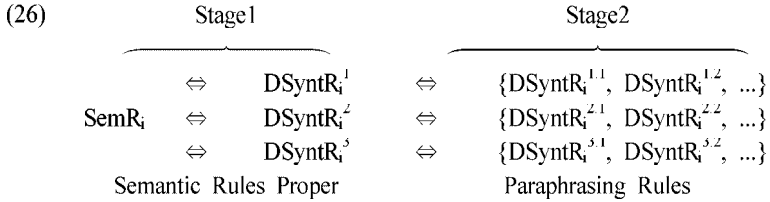
3. 형태화morphologisation : 형태-의미규칙règle morphologico-sémantique을 통해 의미표상에 나타나는 정보들 가운데 문법소로 실현되는 요소를 형태화한다. 이 연산은 표층통사부의 형태화와는 구분된다.



4. 통사화syntaxisation : 어휘화 연산을 통해 선택된 어휘소들을 바탕으로 하여 심층통사구조를 구축한다.
5. 주제화topicalisation : 의미-의사소통구조의 주제-설명, 구정보-신정보, 전체-단언 등의 구분에 따라 심층통사-의사소통구조를 구축한다.
6. 조응화anaphorisation : 의미표상을 바탕으로 심층통사구조에서 중복되는 어휘소들간의 공지칭 관계를 분석한다.
7. 음조화prosodisation : 음조-의미규칙을 통해 의미표상에 대응되는 문장이 갖는 음조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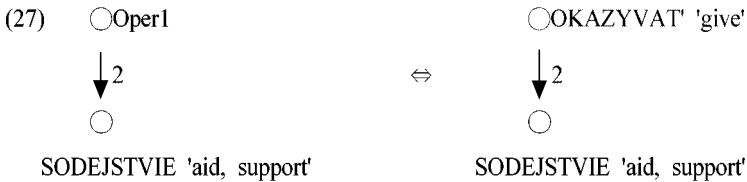
8. 동의적 환언paraphrasation synonymique : 하나의 의미표상에 대응되는 모든 심층통사표상들을 구축한다. 이 연산은 어휘환언규칙règle de paraphrase lexicale과 통사환언규칙règle de paraphrase syntaxique<sup>20)</sup>을 통해 수행된다<sup>21)</sup>.



(나) 심층통사부

심층통사표상과 표층통사표상의 대응관계를 구축하는 부분으로 다음의 7개의 연산이 이루어진다. 특히 1과 2의 연산은 결합·설명 사전의 항목에 제시된다.

1. 어휘함수 값 산정 : 심층통사표상에 나타나는 어휘함수의 값을 그 논항에 따라 결정한다.



2. 숙어소 분할 : 심층통사표상에서 하나의 마디로 나타난 숙어소를 실제의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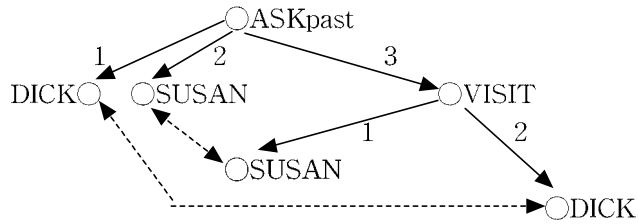
20) 두 규칙은 환언체계를 구성한다. 따라서 심층통사표상들의 동의관계는 환언체계를 통해 분석될 수 있다. 환언체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4절에서 전개된다.  
 21) 언어적인 동의성은 의미부의 어휘화 조작에서도 확인된다. 즉, 어휘화 조작의 하위 규칙들은 의미망을 구성하는 의미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할하며 이를 다른 어휘소에 대응시키며 모두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층수형도 모형으로 분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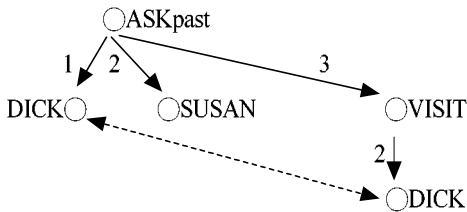
3. 동일명사구 삭제 : 조응 관계를 구성하면서 실제의 텍스트에는 실현이 되지 않는 모든 어휘소를 찾아 표시한다.

(28) a. Dick asked Susan to visit him.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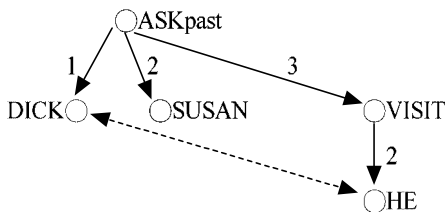
c.



4. 대명사화 : 조응 관계를 구성하면서 대명사로 실현되는 마디들을 대명사로 대치한다.

(29) a. Dick asked Susan to visit him.

b.





X (V, 2[ON]) 표시는 어휘소가 동사임을 그리고 그 동사의 둘째 심층통사 논항이 DEFEND나 INSIST처럼 전치사에 의해 유도되는 구에 의해 표층통사구조 속에 표시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정보는 해당 어휘소의 사전 항목, 즉 지배도식에 기재되어 있다.

#### 6. 표층통사-의사소통구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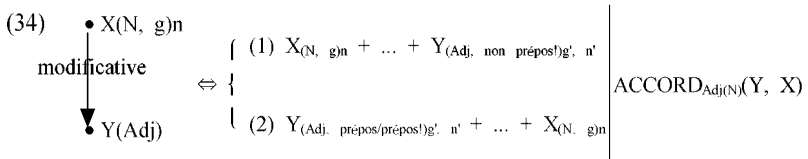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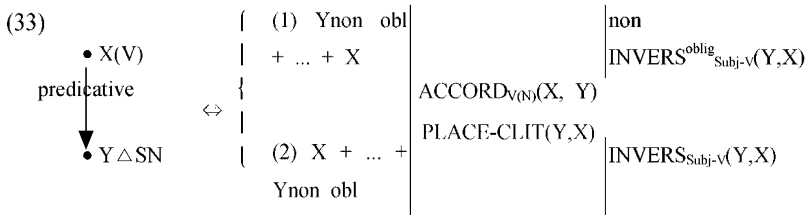
#### 7. 표층통사-음조구조 구성

6과 7의 연산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Mel'čuk의 논저들에 명시적으로 예시된 바가 없어 논의를 생략한다.

#### (다) 표층통사부

문장의 표층통사표상과 심층형태표상 사이의 대응관계를 구축하며 다음의 4개의 조작으로 이루어진다.

1. 형태화 : 명사의 격, 형용사의 성, 수, 격, 동사의 인칭, 수 등과 같이 통사적으로 조건지어지는 문법소를 결정한다. 즉, 일치와 지배관계가 결정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표층통사구조의 마디는 마디에 연결되어 있는 단어 형태의 완전한 심층형태표상을 갖게 된다.
2. 선형화linéarisation : 문장의 실제 어순을 결정하는 연산이다. 1의 형태화 연산과 2의 선적 배열 연산에 의해 표층통사구조의 마디가 형태적 표지를 갖게 되며 선적으로 순서에 따라 배열된다. 문장이 표층통사구조에서 심층형태구조로의 전이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예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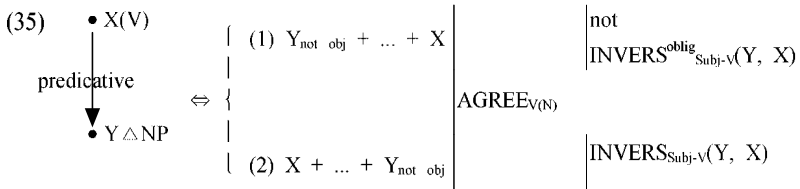


3. 표충통사-생략 : 문맥에 따라서 수의적인 또는 필수적인 다양한 축약과 생략이 이루어진다.

4. 음조화 : 표충통사-음조구조와 표충통사구조에 기초하여 휴지 및 음조가 결정되며, 이를 통해 문장의 구조가 결정된다.

표충통사부는 또한 다섯 가지 유형의 규칙들을 사용한다.

7. 연사syntagme<sup>22)</sup> 또는 표충통사규칙règle de syntaxe de surface : 표충통사구조의 형태화와 선적 배열 연산의 기본 도구로 사용된다. 다음 영어의 예를 살펴보자.



22) 성분구조문법의 연사 17 syntagme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표충통사규칙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Mel'čuk, I. & N. Pertsov (1987)과 Mel'čuk, I.(1988b)을 참고할 것.



표층통사규칙 (35)는 문법적 주어 NP를 갖는 술어구조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 문법적 주어는 대격의 형태를 띌 수 없으며 동사는 ‘일치규칙AGREE<sub>V(N)</sub>’에 따라 반드시 문법적 주어에 일치해야 한다.
- 선적 배열상 문법적 주어는 ‘필수도치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동사 앞에 놓이며 반대의 경우에는 동사 뒤에 놓이게 된다. ‘비필수도치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문법적 주어는 동사를 선행하거나 후행할 수 있다.

ㄴ. 기본 구들에 대한 패턴 :

(36) *these four interesting German books* vs. \**German four these interesting books*

(36)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구의 구성요소들의 패턴을 결정한다.

ㄷ. 전반적인 단어 순서 규칙 : 주어진 표층통사구조의 가능한 최상의 단어 순서를 결정한다.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자료에 입각하여 결정된다.

- 연사에 나타내는 표시
- 주제-서술, 구정보-신정보의 구분
- 사전에 표시되어 있는 몇 어휘소의 특성
- 특별한 배열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통사적 모호성을 피함

ㄹ. 생략규칙

ㅁ. 음조규칙

생략규칙과 음조규칙은 아직 Mel'čuk의 논저들에 명시적으로 기술된 바가 없어 논의를 생략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의미·텍스트 이론과 그 모형에 나타나는 7 단계의 표상들과 6개의 부분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다른 언어 이론과 비교해 볼 때, 의미·텍스트 이론은 언어활동에 있어서 화자의 관점에 중점을 두므로 이 이론의 의미·텍스트 대응관계는 언어산출의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언어산출 관점에서 부각되는 것이 문장간의 환언관계(relation de paraphrases)이다. 이 이론 내에서는 하나의 동일한 의미표상에 대해서 다양한 통사표상이 대응될 수 있으므로 환언관계의 체계적 기술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용되는 하나의 새로운 언어적 장치가 어휘함수이다. 어휘함수는 어휘 단위들간의 계열적·통합적 관계를 잘 포착하여 일반 문법 규칙으로 예측 불가능하나 반드시 기술되어야 하는 어휘의 다양한 특성들을 총체적으로 정밀하게 보여준다. 3절과 4절에서는 어휘함수와 환언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 3. 어휘함수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은 의미표상으로부터 텍스트로의 대응과정을 의미·통사·형태·음운 등의 규칙들과 다층적 표상을 통하여 기술하는 모형이다. 본 모형에서 텍스트를 구성하고 그 구조를 결정하는 어휘단위는 본 모형의 구성부인 의미부의 의미규칙들을 통해 선택·결정된다. 의미망과 어휘단위간의 대응관계를 구축하는 의미규칙들은 본 모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결합설명 사전의 개별 항목을 구성한다. 언어 산출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의미표상은 다양한 텍스트들로 실현될 수 있다. 즉 의미규칙에 따라 선택된 어휘단위는 이와 관계를 갖는 다른 어휘단위로 대체되어 동일한 의미의 수많은 텍스트들을 생성한다. 이와 같이 텍스트를 구성하는 어휘단위는 의미부의 의미규칙에 따라 의미표상을 하위 의미망으로 분할하고 이에 대응되는 어휘단위를 선택·결정하고 이와 관계를 갖는 다른 어휘단위를 선택·결정하는 두 단계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어떤 생각이나 사실을 문자나 그림으로 표현한 종이를 묶은 물건’을 표상하는 의미망은 책이라는 어휘단위에, ‘four-wheel motor vehicle designed for individual transport of a few people...’의 의미망은 영어의 CAR라는 어휘단위에

대응될 수 있다(Mel'čuk, 1996). 이 경우, 의미망은 어휘의미에 해당하며 어휘단위는 이 어휘의미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다<sup>23)</sup>. 한편 책이라는 어휘단위는 문맥에 따라 도서라는 어휘단위로 대체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책꽂이, 책상, 책가방 등과 같은 다른 어휘단위들과 결합하거나 보다, 읽다, 쓰다, 내다 등과 결합하여 동사구를 형성한다. 즉, 책이라는 어휘단위에 다른 어휘단위가 대응되며 이는 어휘단위들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어휘관계는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언어의 일반 의미규칙으로 예측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 (37) ㄱ. 아주 심한 거짓말 — 새빨간 거짓말  
       ㄴ. 아주 적은 봉급 — 쥐꼬리만한 봉급

(37)ㄱ-ㄴ은 모두 ‘형용사 + 명사’의 수식관계라는 동일한 통사구조를 갖지만 그 결합관계의 예측 가능성은 차이를 보여준다. (37)의 예에서와 같이 일반 의미규칙으로 예측되지 않는 어휘관계를 제도화된 어휘관계 *relation lexicale institutionnelle*라 부른다. 제도화된 어휘관계는 (37)에서와 같이 보통 비대칭적이며 의존적인 관계 *relation asymétrique et dépendante*를 보여준다.

- (37') ㄱ. 아주 심한 (거짓말+말+짓+행동) — 새빨간 (거짓말+\*말+\*짓+\*행동)  
       ㄴ. 아주 적은 (봉급+음식+양) — 쥐꼬리만한 (봉급+\*음식+\*양)

즉, 새빨간과 쥐꼬리만한은 각각 거짓말과 봉급이라는 어휘들과만 결합하며 그 밖의 다른 어휘들과는 자유롭게 결합할 수 없다. 제도화된 어휘관계는 그 예측불가능성과 비대칭성으로 인해 상세한 분석과 기술이 요구되며 반드시 사전 항목에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어휘기술은 언어사용과 교육을 위해 실용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어휘자료체의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언어학적으로

23) 어휘의미와 어휘단위의 대응관계를 표상하는 의미규칙은 결합설명 사건의 정의항과 표제어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로도 매우 의의있는 작업이다. 더 나아가 컴퓨터를 이용한 텍스트 생성, 분석 및 자동번역 등의 응용분야에 있어서도 반드시 요구되는 작업이다.

어휘함수는 의미·텍스트 대응모형에서 어휘단위들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으며, 특히 일반 의미규칙으로는 예측되지 않는 어휘단위들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어휘함수는 주어진 하나의 어휘단위와 다른 어휘단위의 관계를 나타내며 관계 자체가 어휘함수의 의미에 해당한다. 주어진 어휘단위를  $L_1$ , 이에 따라 선택된 어휘단위를  $L_2$ , 이들의 관계를  $F$ 라고 한다면 어휘함수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F(L_1) = L_2$$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 어휘함수는 수학적 의미에서 함수이며( $f(x)=y$ ),  $L_1$ 를 함수의 논항argument 또는 키워드mot-clé,  $L_2$ 를 함수값valeur이라 한다. 함수의 키워드와 함수값이 모두 어휘단위 또는 어휘단위들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어휘함수라고 한다.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어휘함수는 어휘단위 간의 의미·통사 역할에 해당하는 매우 특징적인 의미이며 그 의미가 적용되는 어휘단위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되는, 즉 어휘적으로 제한된 어휘관계를 나타낸다.<sup>24)</sup>

#### 4. 환언체계

우리는 3절에서 어휘단위들간의 계열적·통합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나의 어휘단위가 다른 여러 어휘단위 또는 구와 대응될 경우 이를 표상하는 어휘함수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휘함수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어휘단위들을 다른 어휘단위들로 대체함으로써 동일한 의미를 갖는 수많은 텍스트의 생성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의미가 다양한 텍스트로 구현되는 점은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언어산출적 관점에서 중요한 언어적 현상

24) 어휘함수의 분류와 구체적인 예를 위해서는 이병근·박진호(2000)을 참고할 것.

으로 부각되며 이 모형에서는 이를 규칙들의 체계를 통해 기술하고자 한다.

의미·텍스트 대응모형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 여러 언어적 표상들을 환언문paraphrase이라고 하며, 이들간의 관계를 환언관계라 한다. 환언관계의 토대가 되는 동의성은 엄격한 의미에서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의미표상은 의미를 상황 의미, 의사소통적 의미와 수사적 의미로 구분하여 표상하며 이 가운데 상황의미를 나타내는 의미구조를 주요구조로 삼고 있다. 환언관계에서의 동의성은 주요구조를 이루는 상황 의미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의사소통적 의미와 수사적 의미가 다른 구조를 갖는 경우에도, 상황의미가 동일하다면 환언관계가 성립하며 환언문으로 간주된다.

D. Bolinger는 “동일한 심층 구조(즉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른 표층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sup>25)</sup>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화자는 실제 언어사용에 있어 한 의미가 다양하게 표상되는 것으로 인지하며 실제로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많은 어휘들도 적절한 문맥에서는 그 차이를 상실하고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를 문맥적 의미중화neutralisation sémantique contextuelle 현상이라 하며, 문장 사이의 동의성 분석에 중요하게 이용된다.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은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여 일상적 언어활동에서 화자가 사용하는 환언문을 그 기술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 가운데 백과사전적 지식과 추론 능력이 배제된, 화자의 순수한 언어능력만으로 동의성이 확인되는 환언관계를 언어적 환언paraphrase langagière이라 하는데 이를 상세히 기술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은 현대 이론 언어학의 중요한 임무이다. 화자의 환언능력을 형식적 규칙의 체계système de règles formelles로 구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바로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환언체계이다. 이 환언체계는 의미·텍스트 이론의 의미부에 포함되며 그 작동을 위한 어휘정보는 결합 설명 사전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자연언어의 환언 관계는 의미적 환언paraphrase sémantique과 통사적 환언paraphrase syntaxique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환언문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

25) D. Bolinger(1977).

의 어휘가 다른 경우로 의미표상의 의미망에 다른 어휘소가 대응되어 나타나 는 환언을 뜻한다. 후자는 통사구조의 차이에 따른 환언으로서 사용되는 어휘는 동일하나 통사적 구성에 있어 차이가 난다.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의미적 환언이다<sup>26)</sup>. 의미적 환언은 다시 의미규칙 *règle sémantique*에 의한 환언관계와 환언규칙 *règle de paraphrase*에 의한 환언관계로 구분된다. 전자는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구성부분인 의미부의 의미규칙에 의한 환언으로, 의미구조를 표상하는 의미망의 분배와 분할이 다르게 행해짐으로써 어휘소가 다르게 선택되는 관계이다. 후자는 어휘부의 어휘소들간의 의미관계에 의한 환언으로, 이미 분할된 하위 의미망에 대응하는 어휘소를 다른 어휘소가 대체 *substitution*하는 관계이다. 의미규칙에 의한 환언관계는 보다 심층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는 의미론 작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아직 그 연구가 미진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반면, 어휘들간의 계열·통합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환언규칙에 의한 환언관계는 어휘함수를 사용하여 체계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환언체계는 환언규칙에 의한 환언관계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환언체계는 어휘환언규칙 *règle lexicale de paraphrase*과 통사환언규칙 *règle syntaxique de paraphrase*으로 구성된다. 어휘환언규칙은 어휘함수가 표상하는 어휘단위들간의 대응관계를 통해 어휘소 대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술한다. 이 정보들 가운데, 어휘소 대체에 동반되는 통사구조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변형만을 분리하여 기술한 것이 바로 통사환언규칙이다.

(38)  $C_{0(V)} \Leftrightarrow \text{Conv}_{21}(C_0)$

철수가(I) 영희를(II) 때렸다  $C_{0(V)}$

$\Leftrightarrow$  영희가(I) 철수에게(II) 맞았다( $\text{Conv}_{21}(C_0)$ )

26) 통사적 환언관계를 나타내는 통사적 변형은 이미 기존의 언어학 이론, 특히 변형 생성문법에서 증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의미·텍스트 대응 모형의 환언체계에서는 의미적 환언관계에 동반되는 통사적 변형, 즉 통사 환언규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39) C_{0(V)} \Leftrightarrow S_0(C_0) \xleftarrow{\parallel} \text{Oper}_1(S_0(C_0))$$

철수가 영희를 도왔다( $C_{0(V)}$ )

$\Leftrightarrow$  철수가 영희에게 도움을( $S_0(C_0)$ ) 주었다( $\text{Oper}_1(S_0(C_0))$ )<sup>27)</sup>

(38)의 어휘환언규칙은 어휘소를 상대관계에 있는 다른 단위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논항들의 문법적 기능과 실현되는 순서가 변형되는 반면, 동사를 기능동사 구문으로 대체하는 (39)에서는 키워드가 명사화되어 기능동사의 제2논항으로 실현되고 키워드의 제1논항이 기능동사의 제1논항으로 그 기능이 변형되고 있다.

어휘환원규칙은 의미의 등가성 *équivalence sémantique*이나 의미의 함축 *implication sémantique*을 어휘함수로서 표상된다. 위의 (38)과 (39)는 의미의 등가성을 나타내며 양방향 화살표로 표상된다. 반면 일방향 관계에 해당하는 의미의 함축은 일방향 화살표를 갖는다.

$$(40) \text{Caus}X(C_{0(V)}) \Rightarrow X(C_{0(V)})$$

방에 새로 가구를 들여놓았다( $\text{Caus}(C_{0(V)})$ )

$\Rightarrow$  방에 새로 가구가 들어왔다( $C_{0(V)}$ )

$$(41) \text{Liqu}X(C_{0(N)}) \Rightarrow \text{Fin}X(C_{0(N)})$$

차를( $C_{0(N)}$ ) 세우다( $\text{LiquFact}_0(C_{0(N)})$ )  $\Rightarrow$  차가( $C_{0(N)}$ ) 서다( $\text{FinFact}_0(C_{0(N)})$ )

의미의 함축이 표상하는 관계는 어휘소들이 지시하는 사태들간의 논리적인 추론관계이다. 위의 (40)의 사역의 의미를 갖는 동사와 (41)의 정지의 의미를 갖는 동사는 사태의 실현과 종료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

등가성을 표상하는 어휘환원규칙은 어휘를 어휘함수로 대체하는 규칙과 어휘함수를 동일한 논항의 다른 어휘함수로 대체하는 규칙으로 나뉜다. 이 규

27) 본고는 의미·텍스트 대응모형의 환언체계의 표기법을 따라 환언규칙에서 대체되는 어휘단위  $C_{0(V)}$ 로, 어휘함수를 통해 대체하는 어휘단위는  $F(C_{0(V)})$ 로 표상한다.

칙들은 다시  $X \leftrightarrow Y$  관계인 대치substitution와  $X \leftrightarrow Y+Z$ 인 분할fission로 구분될 수 있다.

(42)  $C_0 \Leftrightarrow \text{Syn}(C_0)$

Ce phénomène s'explique facilement( $C_0$ )

(이 현상은 쉽게 설명된다)

$\Leftrightarrow$  Ce phénomène s'explique 「 sans difficulté  $\neg$ (Syn( $C_0$ ))

(이 현상은 어려움없이 설명된다)

(43)  $\text{Cont}(C_0) \Leftrightarrow \text{Fin}(C_0) \xrightarrow{\text{ATTR}} \text{NE...PAS}$

건강을( $C_0$ ) 유지하다( $\text{Cont}(C_0)$ )  $\Leftrightarrow$  건강을( $C_0$ ) 잃지( $\text{Fin}(C_0)$ ) 않다

어휘환언규칙에 동반되는 통사환언규칙은 다음의 3개의 통사 조작으로 구성된다.

- (1) 하나의 마디를 두 개의 마디로 대체하는 분할 조작과 두 개의 마디를 하나의 마디로 대체하는 융합fusion 조작
- (2) 하위 마디에 연결된 가지를 상위 마디에 연결하는 전이transfert 조작
- (3) 가지에 부여된 표지를 바꾸는 재표지réétiquetage 조작

이 세 조작은 기본적인 것으로, 합성되어 다른 통사 조작을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위마디와 하위마디를 뒤바꾸는 전도inversion de la subordination는 아래와 같이 표상될 수 있다.

(1) 분할 :  $B \Rightarrow B \rightarrow A$

(2) 융합 :  $A \rightarrow B \Rightarrow B$

(3) 전도 :  $A \rightarrow B \Rightarrow B \rightarrow A$

전술했듯이<sup>28)</sup> 심층통사구조의 가지는 9개의 관계만을 표상하며 마디는 동



일한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개의 가치를 동시에 갖지 못한다. 따라서 3개의 통사조작과 심층통사구조의 9개의 관계를 이용하여 심층통사구조의 기본 통사변형 transformation élémentaire을 모두 열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합성 통사조작들을 기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법을 수형도 문법 dendrogrammaire/grammaire d'arborescence이라 한다.

그러나 이 기본 통사변형은 너무 세밀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환언체계의 기술은 자연언어의 통사변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분석까지도 요구한다. 따라서 자연언어의 통사현상에 해당하는 기본 통사규칙 règle syntaxique de base의 목록을 구축하고 이들을 사용하여 통사환언규칙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사환언규칙은 어휘환언규칙에서 문제가 되는 마디가 갖는 통사적 변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나 대체되거나 분할되는 마디의 통사적 변형은 이 마디와 연결된 다른 어휘들의 통사적 기능의 변화를 동반한다. 기능동사구문으로의 환언을 보여주는 (39)에서 동사 **돕다**는 그 통사적 범주와 기능이 변형되고 동시에 종속어들의 통사적 기능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표상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통사환언규칙이 주변 어휘들의 통사적 변형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표상하지는 못하고 있어 새로운 규칙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 규칙들은 모든 통사환원규칙을 통제하는 일반 조건의 성격을 띤 메타규칙에 해당한다. Mel'čuk (1992)에서는 몇 가지의 메타규칙의 예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아직 행해지지 않고 있다.

- (1) 메타규칙1 : 규칙 R이 적용될 경우, 규칙과 관계없는 모든 마디는 다른 메타규칙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본래의 심층통사관계에 따라 지배어에 연결된다.
- (2) 메타규칙2 :  $X \Rightarrow Z \rightarrow Y$ 의 규칙 R의 경우, R과 관계없는 X의 종속어들은 Z와 Y에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

28) 2.2.1.의 (나) 심층통사표상 참조.

- X의 I 논항은 Z에 결합된다.
- X의 II-VI 논항은 Y에 결합된다.
- X의 상황수식어(modificateur circonstanciel)은 Z에 결합된다.
- X의 품질수식어(modificateur qualitatif)는 Z가 의미가 없는 기능동사일 경우 Y에 결합되며 Z가 의미를 갖는 동사일 경우 Z에 결합된다.

환언체계를 구성하는 어휘환언규칙과 통사환언규칙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 (1) 동의성에 대한 설명에서 지적했듯이 어휘환언규칙에 의한 환언문이 반드시 엄격하게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결합·설명사전 내의 어휘항목 기술을 참고하여 환언문간의 동의성을 판단·통제한다.
- (2) 어휘환언규칙은 통사·어휘·문맥적 제약들과 의미-의사소통구조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 제약들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려 없이 환언규칙을 기술한다.
- (3) 환언규칙은 경험적으로만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시된 목록이 모든 환언규칙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이 목록의 일부 규칙들은 더 일반적인 것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다른 규칙들의 조합으로 설명이 가능하므로 목록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더 심화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4.1. 환언규칙의 목록

환언규칙에 사용되는 기호들은 다음과 같다.

- (1)  $C_0$ 는 규칙이 적용되는 어휘소에 해당하며 동시에 어휘함수의 논항을 가리킨다. 또한 어휘소가 특정 품사범주로 한정되는 경우 이를 아래 지수로 표기한다. 가령 동사인 경우에는  $C_{0(v)}$ 라고 표기한다.